

# ‘내란 종식·당정 원팀 적임자는 나’…민주 최고위 경선 돌입

문정복·이성윤·이건태·강득구·유동철 후보 합동 연설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23일 합동연설회를 열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특히 첫 합동연설회도 친정청래계 후보와 친이재명계 후보들 간 자존심 대결로 펼쳐졌다.

친정계인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친명계 이건태·강득구·유동철 후보는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문정복 후보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서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선거”라며 “물 샘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뚜렷이 풀쳐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 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두 후보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지만 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좌초된 ‘내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도 약속했다.

비당권파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의 밀착도를 앞세웠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제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제명 정부를 밀착 지원·소통할 수 있는 이건태와 같은 최고위원이 절실히”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 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파였다”며 “당정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당정 핏라인이 되겠다. 민심, 통심, 당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후보는 “이제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정 원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리 옮은 방향이라도 힘을 잃는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당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차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철, 문정복,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에게 맨 앞자리란 없다”고 했다.

그는 “유동철이라 쓰고 이제명이라 읽어달라”며 “이제명처럼 말하고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

로 만들면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논란에도…여성특구 4곳 확정 수순

민주 광주시당, 유권해석 의뢰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대상 아냐”

여성단체협 “정쟁수단 소비 유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추진 중인 광역의원 ‘여성 경쟁선거구(여성특구)’ 지정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지역 정가에서 ‘특정인 내리꽂기’와 ‘정책 제거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지역 여성단체도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특구 지정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 여진이 증폭될 전망이다.

2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최근 논란이 된 공직후보자 추천 권한과 관련해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중앙당은 전날 회신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여성경쟁선거구 지정 및 비례대표 제한경쟁 실시는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 등 4곳을 여성특구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당은 이번 결정이 당헌 제8조에 명시된 여성 30% 의무 공천 규정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조치이며, 지난 지방선거의 교차 지정 원칙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던 당시 도부의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앙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지역위원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용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의 우려대로 현역 물갈이와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내리꽂기’ 공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성 전략특구 지정이 정책적인 논의가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전략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광주시당의 운영 절차상 문제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과연 여성 정치세력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적법한 평가와 젠더 전문성을 갖춘 후보 발굴, 그리고 충분한 선거 준비 기간을 고려한 발표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특구를 지정했다고 발표하는 것 외에는 당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 3선거구 협의인 이명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 의결을 전제로 한 운영위 결정은 전제가 사라져 원천 무효이자 정치보복성 컷오프”라며 당 차원의 중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조국, 오늘부터 ‘호남 레이스’

혁신당 지도부, 광주·전남 순회하며 민심 행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부터 호남 전역을 순회하며 ‘호남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상징성과 지지 결집력이 가장 큰 호남 민심을 선집해 당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최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어 전일빌딩 1층에 설치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 대표단·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호남 정치개혁과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오후 6시 담양 메타프로방스에서 열리는 산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접촉

면을 넓힐 예정이다. 담양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곳이다.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께 목포 ‘소년 김대중 공부방’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철학을 되새긴다. 이어 오전 11시 전남 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 현안을 중심으로 한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장성군 당원 간담회와 곡성군민회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지역 당원 및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27일에는 정읍과 부안을 거쳐 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sunin@

## 광산을 지역위, 당무 평가 조직 서류 적발

민주 당원배가운동 사진 등 6건 위조…중앙당 평가 A→C등급 하향

더불어민주당 광산을지역위원회(위원장 민형배)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당무 평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산을지역위는 이를 곧바로 인정했지만 최근 당원 모집과정에 허위로 진술한 정치인들을 무더기 중징계하는 등 당이 ‘거짓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 추가 감사도 예상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광산을지역위에 대한 당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광산을지역위도 ‘조작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명서

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민주당의 당원배가운동 평가 과정에 광산을지역위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당원배가운동 사진이 아닌 과거의 다른 활동 사진 등 증빙서류 6건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은 ‘허위자료 제출 20%감산’을 적용해 광산을지역위를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치했다. 또 “향후 면밀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나왔다. 실제, 정청래 당 대표가 최근 당원 모집

과정에 하위 진술을 한 정치인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사실상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당내에서 ‘거짓 보고’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실적을 다소 과장해 보고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아예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광산을지역위 관계자는 “실제 진행된 행사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진 일부 오류가 있었을 뿐이며, 현장 실사를 나온 중앙당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며 “오류가 확인된 일부 항목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단순 점수 조정 일 뿐 조작에 따른 징계성 감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zgm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한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 511-2901~3